

# 日 수출규제 총력 대응

###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 기업피해신고센터 운영

전북도는 일본수출 규제품목이 확대 될 것을 대비하여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7월 1일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일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규제를 공식 발표했다.

수출규제 품목은 반도체 핵심소재인 리지스트, 에칭가스,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이다.

전북도는 필수 규제품목에 대하여 자체 조사결과 반도체 필수소재를 사

용하는 지역기업이 3개사로 파악했고, 일부 기업이 에칭가스를 사용하나, 3개월 정도의 비축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단기적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오는 2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분야 필수소재의 수출규제에 그치지 않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일본 우방국)에서 제외하고 수출규제 품목을 확대하면 피해기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부지사를 단장으로 비

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반은 기업지원과를 주축으로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으로 구성하여 지역기업의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일본수출규제 기업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도내 기업의 피해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규제 확대를 대비하여 정부부지사를 주제로 7월 24일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이 긴급 대책회의를 가지고 피해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김기영 도의원, “도 국산제품 사용 솔선수범 해야”

### “일본제품 불매운동 한창인 반면 도청 내 사용 만연해 1천만원 미만 물품구입에 지역업체 우선구매 필요” 주장

전북도의회 김기영(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의원이 제365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통해 국산품 사용 활성화와 지역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김기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민간영역에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한창인 반면 관

에서는 일본제품 사용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국산품 사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 도가 1천만원 미만 물품구입의 경우에도 지역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작은 문구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무의

식적으로 일본 제품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도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영 의원은 전라북도 일상물품 구입관련 조례인 전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국산제품 구입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김이재 도의원, 중국 관광객 위한 알리페이 가입 강조

전북도가 중국 관광객이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알리페이 가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회 김이재(민주 전주4) 의원은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손쉽게 사용하고 있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도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적극적 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국 관광객 뿐 아니라 도내에 있는 중국 유학생과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 도내 곳곳의 업소에 알리

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점점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이 전북에서 더욱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도록 알리페이 가입에 전북도의 홍보 등이 절실하다”며 “실제 단체 여행객보다 완커(개인 관광객)가 확대되고 있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물론 부산 국제시장과 인천 등에서 중국 관광객 쇼핑을 위해 알리페이 가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도 전북도는 아직도 알리페이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지자체도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교통수단이나 택시, 백화점, 로드 슝 등에서 주로 알리페이를 사용되는데 정보부터 확인하고

한국관광을 시작하고 있어, 중국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알리페이 가입업소를 확대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전북에 공황이 없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인들은 서울에서 KTX로 2시간 내외의 전북을 먼 곳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중국은 2시간이면 아주 가까운 곳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전북에서 알리페이 등 관광 인프라가 깔리면 전북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내 대학으로 유학 온 중국 학생만 3000여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들 학생만 알리페이를 사용하도록 해도 도내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 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중국 관광객이 전북으로 올 수 있도록 알리페이 가입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난 19일 '군산 상생형 일자리 협약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생협약안 모색에 나섰다.

## 군산 상생형 일자리 협약안 마련 '한마음'

### 양대 노조·참여기업·노사민정협의회 참여 토론회 정부 공모 대비 내달 중 구체적 상생협약 체결 추진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난 19일 '군산 상생형 일자리 협약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상생협약안 모색에 나섰다.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기업의 투자계획과 상생형 일자리 추진방향을 설명한 '지역상생형 일자리 설명회'와 지역공론화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노사민정 컨퍼런스'에 이어 상생형 일자리의 핵심요소인 '상생협약안'에 대한 토론회로 지역 의견수렴 등 공론화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 윤동욱 군산시 부시장, 군산시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위원(민주노총, 한국노총 포함), 참여기업 대표(조세현 에디스 대표, 박상덕 대창 부사장, 박호석 명신 부사장), 이태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과

장, 조한교 중소벤처진흥공단 전북본부장, 군산대 김현철 교수 등 지역 노사민정 30여명이 상생협약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논의된 상생협약안 의제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원하청 상생, 지역사회 상생, 투명경영 등에 대한 내용으로 7~8월에 의제별 토론회를 거쳐 8월 말 지역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사회 공론화를 위해 이날 논의된 상생협약안을 토대로 오는 24~25일 이틀간 군산대학교 이노테크홀에서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상생형 일자리 공론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생형 일자리 공론화 프로그램은 상생형 군산 일자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상생 협약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으로 속의형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의 공론화 프로그램으로의 공론화 결과를 노사민정 협의회에 전달, 상생협약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 프로그램은 신고리원전, 대입제도,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공론화 등의 다양한 공론화 기획 및 수행경험이 있는 한국갈등해결센터(공동대표 김주일 교수)가 주관할 계획으로 전북군산 상생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지역 공감대와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산업부는 공복법 등 관련법 통과 후 1개월 내 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3/4분기 중 2~3곳을 추가 발굴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의제별 3~4차례 토론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말까지 구체적인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산업부 공모에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현지의정활동 전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19일 전복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와 전복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했다.

환경복지위원들은 '전복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를 방문해 생태관광 프로그램 발굴 현황과 전복 1000리길 안내 체계 구축에 대한 홍보 등 현황을 청취한 뒤 추진사업을 점검했다.

이어 전복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이동,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한 뒤 학교 밖 청소년지원 우수 프로그램인 청년 CEO 카페 꿈드림 및 청소년 상담실 등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

최찬욱 위원장은 “최근 생태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전

북민의 특색 있고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 전북도가 대한민국의 생태관광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센터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과 사회의 많은 위함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기 삶을 올바르게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과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여름철 호우 대비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점검

전북도는 지난 19일 익산을 찾아 여름철 호우 등에 대비해 문화재 발굴 및 정비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번 안전점검은 제5호 태풍 다스리가 북상해 장마전선과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최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중 토사로 인한 매몰 등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우려 지역 주변 시설물 정비와 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사전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철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일행은 이날 2015년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익산 왕궁리 유적과 쌍릉유적 발굴조사 현장을 방문해 발굴조사단을 격려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14개 시·군과 도내 발굴·조사기관에도 '문화재청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현장점검 및 사전대비 안전을 기할 것을 시달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